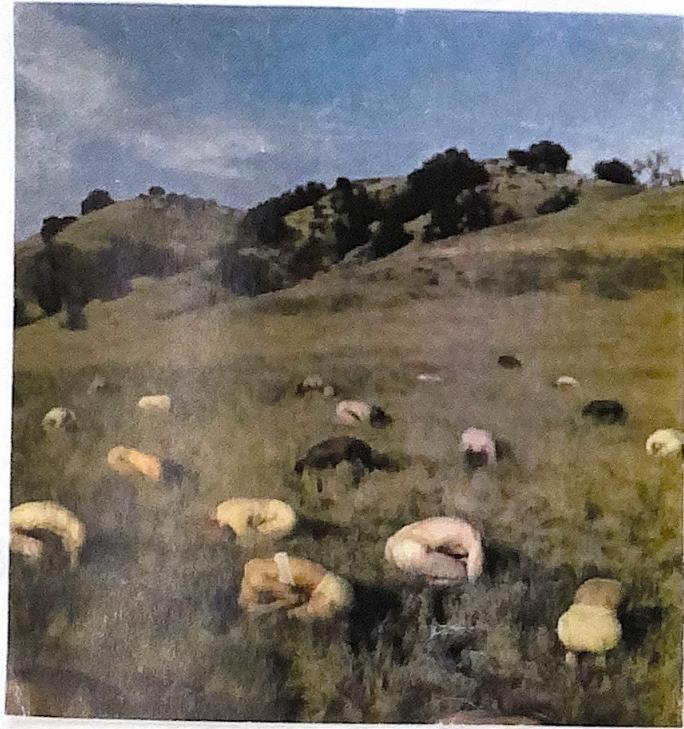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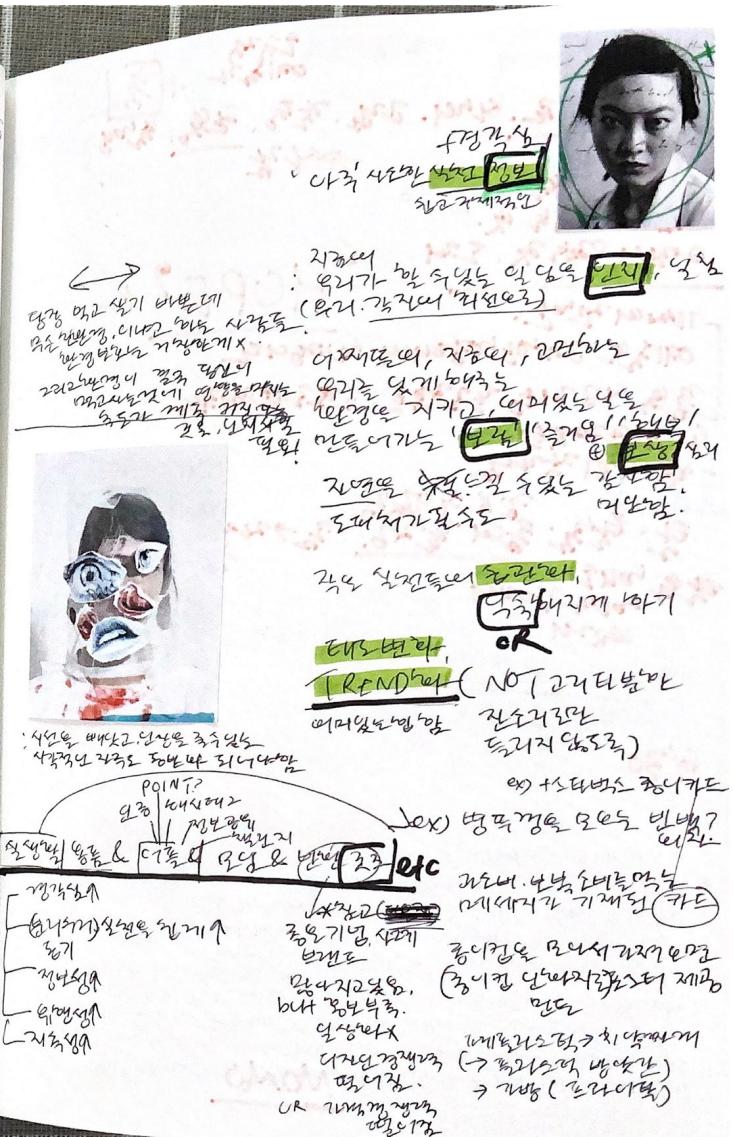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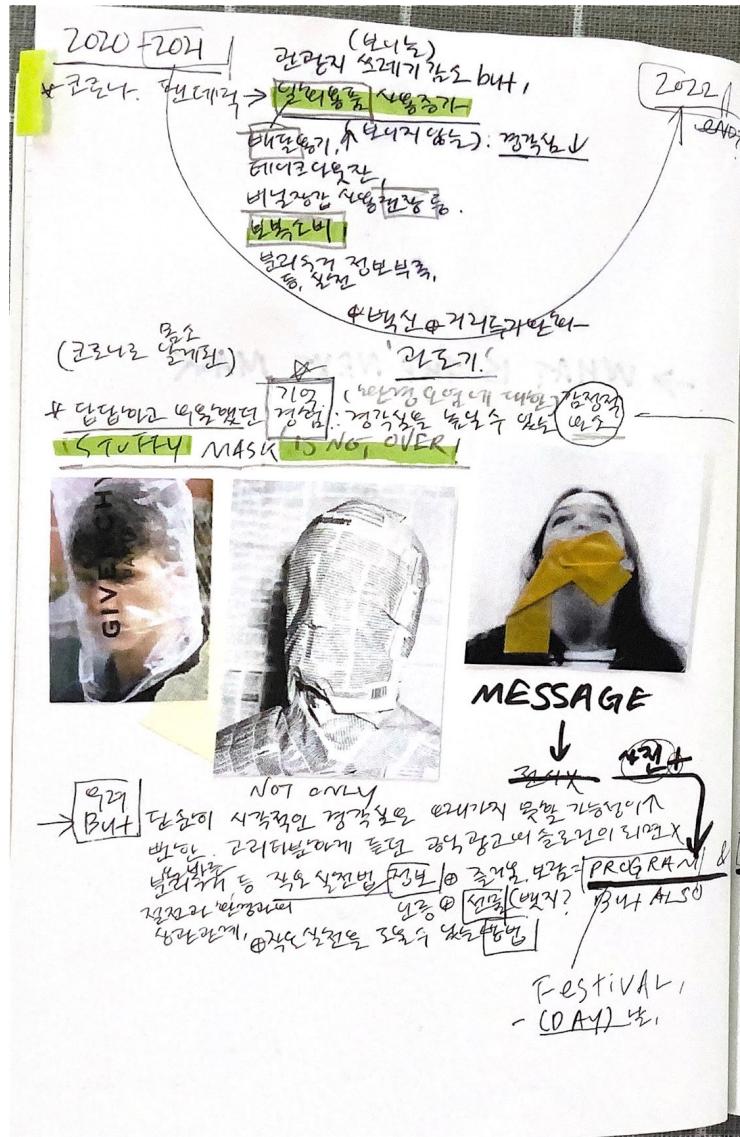


→ WHAT IS THE NEXT MASK





## 49.5도 살인 폭염...밴쿠버서만 100명 숨져

2021.07.30 일요일 9:16

[환경신문]

미국·캐나다 서부, 사상 최고기온 경신하며 피해 속출

[환경신문]

노인 등 취약층 잇단 돌연사  
정전에 가을·하aze도 겪자북반구 모든 고기압·열대  
기온·인기운과 해설해야

미국과 캐나다의 기온이 사상 최고기온 49.5도까지 치솟으면서 물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캐나다 남서부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 돌연사가 잇따랐고, 미국 워싱턴주는 폭염으로 정전사태까지 겼었다. 뉴욕타임스는 기후위기로 폭염 가을 화재가 한꺼번에 와면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온경기 기관부는 29일(현지시간)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던 지역 기온이 49.5도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800년 대로 이후 100여년 만의 최고기온이다. 2010년 세계온난화가 절친 밴쿠버에서 폭우폭으로 260㏊ 헛웃진 리본은 서울보다 6~8돐 짱군기온이 1~3도 낮지만, 이를 아파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보다 더 덤겼다.

미국에서는 서부지역 주민 2000만여명에게 폭염 경보·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전날 기온이 각각 사상 최고기온 42.2도, 46.1도로 관측됐다. 두 도시의 6㏊ 평균기온은 20~23도다.

폭염으로 사망 피해도 속출했다. [캐나다 CBC 방송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몇몇 밴쿠버에서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9명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로 위생관련시설인 밴쿠버 경찰은 '보를 하루에 3~4㏊가 돌연사하는 29일에는 오후 1~4㏊ 전에 20명이 숨졌다'면서 '폭염 게도 수십명이 폭으로 죽고 죽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12~19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53명이 사망했고 지역민은 애리조나리퍼블릭이 전했다. 오리건주도 최근 쟁쟁한 도로 1명과 노숙인 2명의 돌연사가 폭염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CLIMATE IMPACT LAB

\*기후 영향 연구로 불법결과에 대처한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에 대처할 경우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에서 (대도시) 기온이  $49.5^{\circ}\text{C}$ ( $120^{\circ}\text{F}$ )를 넘을 높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 뉴욕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년간 평균기온이 1.5도  
기온에 불과했으나, 2005년 이후 240일로 예측되는 평균기온은 46도로 예상)  
+ 미국에서 가장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대도시나 저 평균기온의 결과  
증거의 124일에서 → 새롭게 기록을 깨운(기후의 결과)

미국 워싱턴주는 이날 기온이 42.2도까지 오르면서 정전사태를 겪었다. 워싱턴주 스포츠 지역 9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이에스파워풀리티지  
물적 폭염과 전례 없는 천기수요가 배전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전력을 차단  
다고 밝혔다. 포틀랜드는 전력 케이블이 녹고 전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온  
전철과 노면전차 운행이 멈췄다. 일부 아워 수령장도 영업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을로 산악까지 발달한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속  
방동국은 전날부터 국유림이 있는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서 활동한 암  
파제를 이용해 진압하고 있다. 언론 차량주인 한정에게 대피성이 돌아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주는 소방 인력과 장비 충원, 특히 수면구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이 닥친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이 북반구 전역을 차지  
하고 있는 열돔(heat dome) 현상 때문이다. 캐나다는 지난 50년간 폭염과 폭우  
기온이 1.7도 올랐으면서 '폭염 현상'이 남서부 캘리포니아·플로리다·캐나다  
북극 경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무분별한 폭염'에  
사용으로 미국에서 1960년대보다 3배 더 자주 열돔이 발생하고, 폭염 75% 증  
가에 연도 1980년대보다 25% 높아났다'면서 지난 30년간 미터기온 평균  
해 시장률을 높였다. 더 많은 사람의 폭염으로 목숨을 잃거나 건강문제로  
이 인슐린 워싱턴 주지사도 '이번 폭염적인 폭염사태의 시작'이라며 '우리는 평  
제의 완전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서부지역 주민 2000만여명에게 폭염 경보·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전날 기온이 각각 사상 최고기온 42.2도, 46.1도로 관측됐다. 두 도시의 6㏊ 평균기온은 20~23도다.

폭염으로 사망 피해도 속출했다. [캐나다 CBC 방송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몇몇 밴쿠버에서만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9명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로 위생관련시설인 밴쿠버 경찰은 '보를 하루에 3~4㏊가 돌연사하는 29일에는 오후 1~4㏊ 전에 20명이 숨졌다'면서 '폭염 게도 수십명이 폭으로 죽고 죽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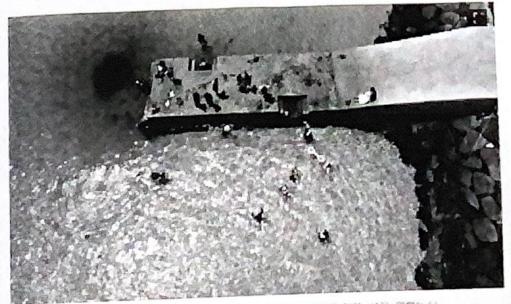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12~19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53명이 사망했고 지역민은 애리조나리퍼블릭이 전했다. 오리건주도 최근 쟁쟁한 도로 1명과 노숙인 2명의 돌연사가 폭염과 관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끝나면 폭염"...UN, 대규모 인명 참사 경고

김호준

입력 2021.06.25 17:00

141



자난 7월 제주시 한경면 한마리 푸구를 찾은 관광객이 스노클립을 유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구 온난화가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FP통신은 23일 온난화와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년 보고서 조항을 인용해 코로나19 이후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대규모 사망의 원인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0.4^{\circ}\text{C}$  즉 산업화 이전보다  $1.5^{\circ}\text{C}$  오를 경우 지구 인구의 14%나 5년마다 최소 한 차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주장했다.

IPCC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대도시에서 폭염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장한 성인은 습구온도( $wet-bulb temperature$ )가  $35^{\circ}\text{C}$ 를 넘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습구온도는 온도계를 등유수에 적신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축온도와 다르다.

AFP는 이미 지구 온난화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습구온도로  $30^{\circ}\text{C}$ 를 기록한 폭염의 영향으로 4000명 이상 사망했다. 앞서 2003년에는 서유럽에서 뮤너의 여과로 5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보고서는 중국 중부와 중앙아시아에서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도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한국 대체로  
기세기 첫 10년과  
같은 속도로  
높아지는 대로 (여름)  
온도는 여서  $7.2^{\circ}\text{C}$   
지수로 전망  
(여성은 7.4도,  
남성은 7.6도,  
남성은 여자  
여성 대체로 남성  
남성 35도에 예상됨)

죽임의 짐승은 인간만 마지 불러 일으킨다.

## Getting worse! Worse!

최근의 한 연구는 유전학 기법을 사용해 30여년간  
인간의 최대령과 수명을 고지기 시작한 3.21.437개월 것으로  
예측했다. 더 많은 연구가, 인류의 예상한 수명은 대체로  
불가피한 결과이다.

예상한 것을 두고는 성장으로 그나마 대처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상치 않은 노출되는 개발 도상국 사람들을 향한 죽임은  
곧 3.21.600년 대법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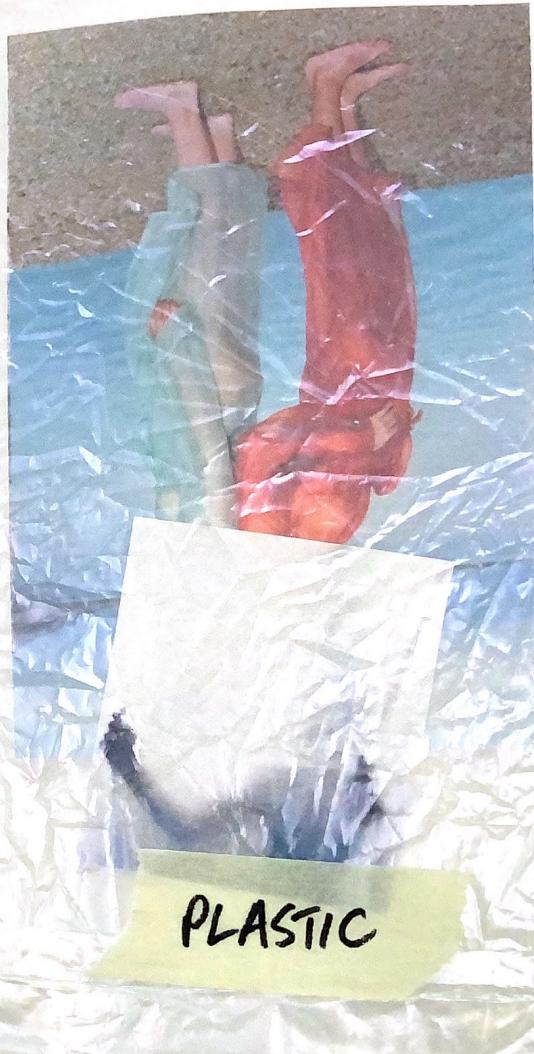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0% 이상에서 기온의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인도의 죽임 사망자는 3.21.600년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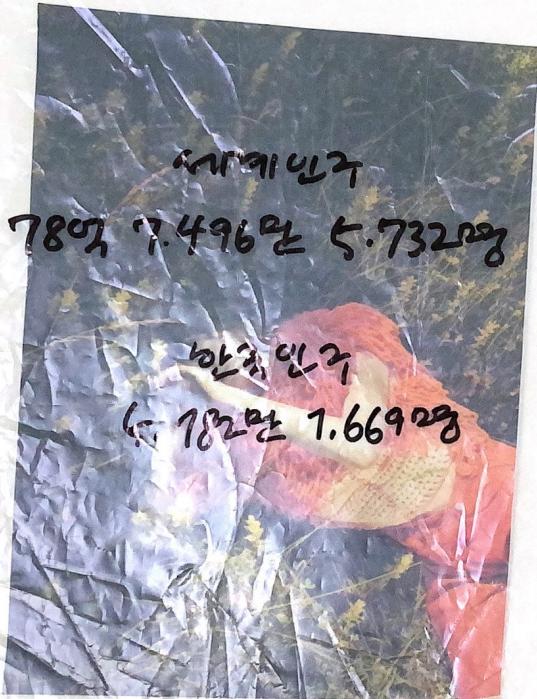
죽임의 짐승은 죽을 생존의 짐승으로 이어진다.  
영자 결과, 성인 20%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인구의 유통주와 함께  
수명을 급격하게 줄일 것이고, 대내에서 일어나야 하는 죽임 증가의  
생산적 양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온 상승의 불가피-결정적 증가에 마지막 영향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박자, 문화재청에서도 관리]

고객은: 홍성동집과, 맹동성 백화점 등  
"사람들은 기온 상승으로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돌내놓는 것이라는 생각 정도면 하지만,  
죽임의 예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농민네에서  
여기의 삶을 얼마나 대단히 시기하는 생각지 않았는가."

— 솔로운 죽음 —  
\* 마지 비줄리대에서 공공정책 연구

죽임의 짐승 보고서: 21세기 말까지 인류의 주식은  
쌀주식량의 25%가 감소할 가능성이  
(유전자는 10~20% ↓ 30~40%)  
\* 40% 대량의 죽임 될 것 예상된다 —





~~2018년 6월 2일~~ 1. 각 지역의 성태여. 52주.

자신 스스로가 막을 수 있는 작은 실천.

지금 먹으려는  
음식이나  
제작한 음식은  
제작한 대로

생계에 뛰어넘어 질정도로

이상한 음식으로 대체하고

제작한 음식을 먹지는데 아님)

그리고는

① **봉투** **쓰기** 대신 (나稠하고  
봉투쓰기 대신) 광양백진

2. 나눠 인식하기 대신

제작을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봉투쓰기 대신를 막는 것

② **봉기수기** (임자연  
기능성 문제)

기록 일기들  
(일기로 어려운 실천)  
③ 대중교통. 자전거. 걸기  
대여점→ 이용  
걸기적극 (아이, 고등어)

④ 영국의 과학 기관 (POST)은 2006년 '탄소발자국' 이런 용어를 만들었고, 개인별로 개인의 CARBON FOOTPRINT 및 제품별로 단순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환경 등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ex) CN/N '녹색생활을 시작하는 10가지 방법'  
10 FIRST STEPS TO GREENER LIVING

#### ① 전전 형광등 설치하기

전기를 아끼는 철전형광등 (CFL)은 빛나는 전기차마는 '에서도' 가거나 비싸지만 이제는 마트에서 쉽게 구입 가능. 백열등 보다 비싸지만 백열등처럼 휴식은 적은 절전으로 수명도 일반 전구의 10배.  
→ EPA(미국 환경부)는 "미국 내 가장 저렴한 전구, 1개월에 철전 형광등으로 비해서 연간 800파운드의 친환경적인 백열등이나 일상의 온전기로 절약할 수 있다."

② 철전 온도계: 여름에는 25도이고, 겨울에는 20도 날씨기

#### ③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철전의 필터는 청소도 더 깊어 먹고 윤활기름↑  
온전기로 ↓  
(2013)

#### ④ 전기제품은 둘러고 볼아두기 ex) 냉장고

+ 에너지 소모율 등록 확인하기  
'대기온정의 개념'  
'냉각제발전 (고객을 때 메밀기로 일상화되고, 이산화탄소)  
'절전기제품을 통한 전기 절약' etc.

전기를 생산할 때는 온전기제품은 배출하지만  
전기를 쓰는 전기제품에서는 온전기제품은 배출하지 X

#### ⑤ 절약用电 사용기쓰기

물을 적게 쓸수록 좋으므로, 물을 재워는데 쓰이는 에너지도 절약.

#### ⑥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고속도로에서 터너의 경기장을 적절히 예치하고, 정속 운행을 하는 것으로 연비를 15%나 줄일 수 있다.  
액세스로 브레이크 밟고, 금정제로 가급적 타이어와 세면을 넘지  
⑦ 자전 대기할 때도 공터장을 예치하고 시동을 끄거나  
내 단에서 운석을 밟는 드라이브 풋을 사용하기.  
(= 차량의 경비들이 가속성을 증가)

#### ⑧ 가로에 한번 차동차 고기잡이

~~마트~~ 손수건서 고기잡이 막기  
점화 풀기,  
금기 멀티  
연료 절약: 대기의 농경이나 노동과 같은  
경기장과,  
온전기로,

#### ⑨ 자전거 생활하기

#### ⑩ 일주일에 차리는 차식하기!

여행한 차식으로 물과 절비가 잘 되었으면 고기 섭취량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 걸로 20분의 고기 접시에 200g면 가능하다. 30킬로 20분의 네는 종과 라면을 먹어야 한다.  
그런식으로 차례의 베스트셀러 <작은 자국>에 있는 대나무에서  
자작단 사용

FRANCES Moore LAPPÉ  
'Diet For A SMALL PLANET!'

설거지 미용 내 축산법에서 소화되는 물은, 미국 전역에서 소화되는 양의 절반에 해당한다.

#### ⑪ 제작업식하기!

온전히 생활에서 유동기자(이동의 기자)를 퍼드 마닐라자와 부른다.  
미국 대체로 '자족가능한 식탁'에 대고면, 풍진의 퍼드 마닐라자는  
물론 그 자체로 먹거나 된다. 퍼드 마닐라자가 농을 주로 어머니 마닐라  
등의 '자족가능한 풍진자'로 소개된다.

Sustainable Table

## 을바른 분석수기법

7. 증여를 통해 소유자가 안되는 경우: 은산물의 물을 끌어, 백지, 코팅된 종이, 전보지, 서류지, 기계지, 라벨지, 페인트, 일회용 장갑이나, 단기로 쓰는 박스 등  
※ 박스 테이프

(증여증) → 증여장을 따로 볼줄 알기.

→ 미처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알았던 것들이 알았던 것들이 알았던 것들이 알았던 것들이

2. 고액증여세, 고액장관을 일반쓰개기  
→ 증여수익·세제특례  
→ 증여세: 원가액+증여 불가한 후, 증여에 포함된 증여세 제거!  
→ 증여가지 재산의 사용에 있는 경ue 불가하기 인정.  
→ 증여를 대체내기(기부)

3. 여인  
→ 여인, 여인, 여인, 여인, 여인, 여인, 여인

4. 비닐  
 → 일회용지, 비닐봉지, 디자인이나 글씨로 비닐을 오래쓰거나  
 미술용지처럼 일정한 템플릿을 띠기, 면지봉투, 비닐봉투,  
 → 비닐을 색깔을 사용한 디자인이나 모양을 넣어 활용  
 (예전에 비닐봉투)

5. 고속도로 전자화  
 → 캐리(내수용품) 예약하기!  
 → 가스는 가정에서 나누기  
 → 경전지, 충전지, 전동차를 대로 모으기

7-1) 스러운 품질  
 경기면 생기 → 맹그루의 햇볕 아래 푸르고 고요한 물 속에서  
 물고기가 가냘픈 몽태가 됨.

수족·액자 병 → 100cm의 징역이 걸려있어 명상으로  
 수족이나 대형 마트에서 물고기를 험상으로 살피기 가능.  
 ↳ 뚝딱 놀라운 보라!

여행용·식용·세제 → ① 유통보다 고체·영 사용하기. 유통업장  
 스티커 대체하고 내용물을 영어로 번역하기

온다시  
의약품을 고체의약품 → 액체, 보관조리를 가능케 한다.  
 예상치거나 예상치 않은 배송으로 인해 증기, 표유물, 누출 등에 의한 오염  
 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 협력된다.  
 (가스포장재는 고체의약품 전용 처리장치)

2-1) 터 → 라니터를 키고 일상용 배달을 블로그 활동하고 (가스포장재)  
 가스가 ~~액체와 함께~~ ~~액체와 함께~~ (반드시!) 액체와 함께 블로그를  
 살피고,  
가스포장재와 함께 활동해.

▶ 가스포장재와 함께 활동해.

▶ 가스포장재와 함께 활동해.

가스포장재에서 일상용기기  
 배송. 다음에 예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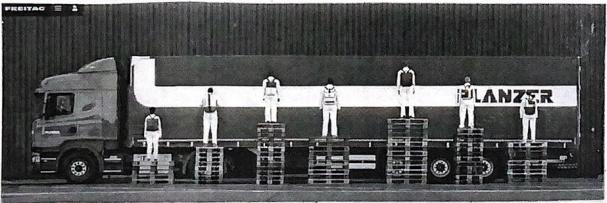
온나물, 죽세사, 네이처 → 여과·농축  
 여과·농축 예기류, 단단한 채소기 (작은모)

+ 전기장판, 증기·정전기 포터  
 불전기, 디지털, 청진기, 노트북  
 고온수건기, 고온장갑,  
 고온장 라텍스장갑, 조각기,  
 보온보냉백, 캐리백도 ~~캐리백~~  
 (기름통을 넣어쓰)  
 나무젓가락, 냉동재,

\* 전기차와 딱지 접지 않기!  
 전기차·방전기, 전기차·증기류  
 (내부 충전 완료 기기)

▶ 비닐의 끝과 가벼워나  
전기차와 딱지 접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가 딱지를 풀었을 때  
 기계에 풀리기 때문)

장고 밭 만한 브랜드, 기업 시리즈 → 기업의 끝

① 트라디셔널 → 가장 활동적인 브랜드  
1993  
→ 농가로 트라디셔널 텔과 농가로 트라디셔널 브랜드 경계가 더욱 확장  
한데서 농가로 트라디셔널 브랜드는 농작물의 보관·운송·판매를 만들기로 결심!  
④ 반복적 유통망 개선  
↓  
2014  
→ 농가로는 유통망이자, 지역을 초월한 장래성이 있는 T-ABRIC을 운영.  
상과 대비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더욱 좋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가능.  
② 품질과 질감 (여기서는 딱히)  


트라디셔널의 품질과 질감  
기본적인 재료로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자가 100% 친지역의 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질과 대형화 생산량에서 강점  
→ 소비자 만족 (여기서는 딱히) A

\* 기획의 디자인은 디자인을 / 그걸 더 풍요롭게 하는 기획대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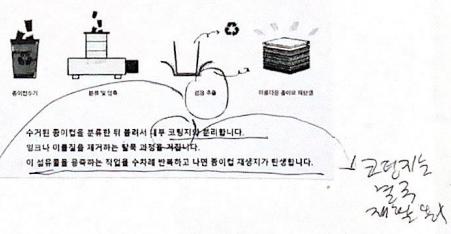
### ③ FILAROID 펄카포리드(줄다)

온상은 대중은 2019년부터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인 온라인 판매로 인해  
온라인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온라인 배송을 주제로 하는  
→ 온라인 배송지로 만드는 아티피셔널 브랜드!

→ 2019년 온라인 종이컵 재활용에 대해 보고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종이컵을 재활용해 만들 재활용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에서 찾고, + 구독 배송을 받거나 배송(온라인 판매)이다

**[주제]** 종이컵의 재활용성이 대체로 가능으로  
→ 종이컵 자체로 환경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비용도 ↑  
전세계적으로 배송지를 종이컵으로 25억 개에 달하고,  
종이컵은 폐기할 때 배송지를 이용해 페트 및 폴리에틸렌  
16만 톤에 이른다. + 고온나이트 레토(환경보호부)

## 줄다의 종이컵 인화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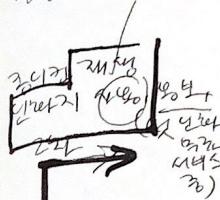


온라인 종이컵에서 분리된 종이 부분은 사용  
장식과 디자인을 달라도 모아서 일정 기간에  
종이컵 내부에 얹질 않도록 재활용된다.  
이 단계를 통해 종이컵의 내용물을 분리하는  
온라인 종이컵은 절제하지 않는다.

→ 제조(불고기) 위생과 깨끗한 인화지를

종이컵 제품과 같은 노스케일아트리얼 인화지도 인화제가 자의 흐름에  
(종이컵 인화지는 액상과 연결되는 디자인은 딱 맞는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하고 몇 개의 종이컵이 재활용되었는지 보임.



## 버려진 종이컵을 줄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카페 식당 등  
한번지와 노란

텅 빌려 사용할 가능을 위한  
한번지 활용하기,  
종이컵 활용 대신 (코팅지)  
종이컵의 사용하기,  
생활해당의 종이컵 사용하기,

한번지 활용하기

텅 빌려 사용하기,  
(한번지) 사용하기 (카페 식당 대체)  
활용하기

여기 나에게 있는 쓰레기 산을 찾았을 때는 놀랐지? —  
→ 예상치 → 나는 나중에 보다 더 넓은 쓰레기 산.  
가능한 한 번 더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예전에는 CNV 자체로는 거대한 구조적 손상은 경부와 신경줄의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대신 줄 모양의 생동적인 원인 대개 기관지에서 찾았지만,  
이들을 쓰레기 산은 "기관지 대사활동" 손해가 되어가 단기에서  
여기와 "쓰레기 산"이나 "돌다"고 생각되었다.

(ex3) 예상값 보다 더 높아야 소리가 끓니 경기도 외장복에 있다.  
경기도 약 26만 2000명, 약 3348명 (1만 7070명)이  
부지내 출마를 한의 4~5%로, 가장 높았던 약 15%가 되었지.  
외장복 경쟁률이 대비는 고작 4배이니 비슷하다.  
선행으로 뉴스가 다지고 이어진 것도 없어 '승선'과 '출마기'가 겹쳐  
갖쳤다. 당론여론 '당선', 스테이트는 막대기 등 검찰 폐기율이  
2~3배 뛰어난다.

여기서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거다. 1999년부터 이 일대 새마을마을  
에서 거리가 높아지면서 영재는 재산을 점점 더 높아졌다. 영광을 놓고  
영재가 높아진 데 걸친 계약을 맺어 살았다. 영광을 놓고  
영재가 노년을 맞았을 때 높아지면서, 시도 나름을 놓고  
자연이라고 이런 영광을 내걸었다. 그것보다 영광을 놓고  
영재는 영업 초기에는 저렴하게 판매되었지만

→ ④) 원천자원재활용 쓰레기장을 통해 경제 대회가 양질을 높이기로  
정책을 선고받아 고도화된 수급증진이나 재생자원 분배자연  
생태계는 쓰레기장을 시설을 조성하겠다.

→ ⑤) 원천자원재활용 쓰레기장을 통해 경제 대회가 재가보건복

모든 생활기 산을 비슷한 과정으로 초기화된다. 단계 광고는 대체로  
재생하는 단계에서 주로 생활기로 광고를 초기화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광고는 광고에서 쓰기기를 보여주는 단계 → 나중 재생하는  
단계에서 대체로 광고를 이용하는지를 이해해 시장 분석, 내용을 알기  
등으로 예상되는 것과 일치된다.

등 나온 쓰레기는 놓여나고 처리해나간다.

→ 예측기준이 되어지기로 한다.  
설정기 선을 날개가 나고 ~~날개가 나기도 한다~~ (한번에 주입하고)  
설정기로 빌면 다른 날개가 되기로, 드리프트, 흐름등 기관을 대체하여  
설정기로 기준에 부대해 선을 고체에 쓰기로 하는 날개가 진동

방식 폐기물은 반경복리에 따라  
별법 폐기물이 더 적어 보일 수 있고 전자폐기물은 개수를 정하고 3개,  
별법 폐기물은 양을 적어 이를 정한 다음의 경기도로 그동안 경상북도

설계기준 대비면밀 나오는 디자인상의 단점을 대비해 볼 수 있다면 원래의  
설계 단점에 따라 2017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 주제 쓰레기 소통식당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에는 대신 대기장을 통해 대안적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찾지만, 원래의 디자인은 재활용  
단점은 유망한 대기장을 더 어렵다. 대안적인 디자인은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폐기하거나 (증축 혹은) 폐기된다. 단점은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경쟁력이 있는 대신 보다 커서 대체로보다 그늘 배울 2017년 창업에  
불과한 딱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 2017년 말에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쓰레기 수거료는 2,200원

98.2 kg ♀

মুক্তি আন্দোলনের পূর্বে ১৯১১  
১৯১১-১২ মুক্তিপ্রাপ্তি হয়।

한국문화재보호법 제291조  
제기예금 10여 세금 291'

5 years ago  

$$\frac{98.2 \text{ kg}}{3.66} = 26.9 \text{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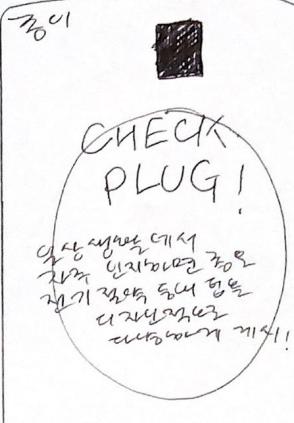
$$= 98.2 \text{ kg}$$

(5년 후 날 지급!)  
당연히 사용을 예상하는  
그러나 시대의 흐름으로 소비층은? ?들이 유통망으로 흘러나왔다.

# APPLICATION./SNS WITH POSTER!

## PROGRAM

## How to Step - Reduce



→ 키드먼, 카로를 쓰기 위해 만든  
그리드네트워크  
(→ 가로를 놓고 세로를 하거나  
시계방향 키링 등이  
쓰임을 먼저 배운다)  
→ 예전에 키드먼  
→ 키드먼, 카로를 만든다.  
\* 키드먼, 카로를 만든다.  
→ 키드먼, 카로를 만든다.

④ 어려운 개념이면 [⊕] POINT  
어려운 용어가 많거나,  
이상적인 것들 많아.  
하기.  
제작하는 험난한 내용을  
시작할 때는 부수수준은  
④ [⊕] POINT / 시스템  
부록처럼

증여금 인건비를 부과하는  
액스터

~~✓~~ OR  
SECRET

② 정보광역 (보광역, 통계, 보고서, etc) + 신호판 설치구역  
MAG4지역 (도로나 철길, 철도교, 차량통행제한  
등에 걸친 지역)에는

Org(Al)



[브랜드 이야기] 프로젝트 루프① 패션아이템으로 변신한 국산 '페플라스틱'

한국판 저작권자 © 2021-01-26 00:00

액트업 6개는 운동화, 30개는 가방

③ 모임. 커뮤니티. 공동 공간 (사회적 네트워크)

ex. -자전거 놀기  
- 자전거 놀아요 놀아요

-5-2021.7.23

—> 한국어 영어  
—> 161813 날짜

한국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입니다.

- 01/01. 3월 8월  
여름. 고복. 살티. 친밀하고 옥발

A dark, abstract painting featuring a large yellow shape on the left, a red shape at the bottom left, and a pink/red shape on the right. A signature in white and black ink is overlaid on the center-right area.

997

W

여수 시내에 현장 OR 면접으로! 시장학영의 기회제공.

① (a) 진에서 보울을 넘는

재민들은 물가를 한  
시을 품으로 꾸정거리다니는  
이거는 아름다워  
다이렉트 상당부  
제작, 판매하는 그들이었고  
우리 전통식 시장이었다.

→ 턴 백을 기도  
즉거스터드 백 백 백을  
기다 만족이니  
다시 템플러  
'날 죽여 + 응보' 노래

② ex) BULB 설명? [75% 때] 전기로 한시간정도 사용하지  
않을 때  
설명을 찾으려면  
설명을 찾으려면  
설명을 찾으려면